

깨끗한 환경 깨끗한 환경운동

사 단 법 인 부 산 녹 색 연 합

(48535)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한신 문화타운 상가 305호
전화) 051-623-9220, 628-0902 전송) 051-623-9303 담당)김수정

보 도 자 료

N E W S R E L E A S E

[성명서]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보호지역, 쓰레기섬으로 변해

-보호지역 중의 보호지역 낙동강 하구, 해양폐기물 그대로 방치

부산녹색연합이 낙동강 하구 보호지역의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에 속해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폐기물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낙동강 하구의 관리 부실 현황

낙동강하구는 주요 철새도래지로 1966년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되었으며 1987년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1989년 생태계보전지역(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1999년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되었다. 2011년에 관리 효율 문제로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해제되어 현재는 3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도 별도의 관리를 받고 있다.

1966년 천연기념물 최초 지정 당시의 면적은 231.9km² 나 하구둑 공사, 군작전도로 개선, 명지지구 동남권개발, 녹산지구 동남권개발 등 지속적으로 해제되어 현재는 겨우 약 8.7km² 만이 남아있다.

반면 습지보호지역은 34.20km²에서 37.7km² 로 30년간 약 3km²로 늘어난 수치다. 습지보호지역은 환경부가,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이 지정 및 관리 의무 책임을 가지며 무인도서 지역이자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다. 또한 국토부가 관리해야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또한 절대보전 무인도서로도 지정되어있다. 절대보전 무인도서는 보호지역의

통계(KDPA)2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부장관이 10년마다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보전지역이다. 절대보전지역과 준보전지역, 이용 가능지역 등으로 나누어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중 절대보전지역은 동법 제10조에서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행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 로 하여 사실상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다. 동시에 특별관리해역으로서 해수부가 환경오염원 관리에도 책임을 가지고 있다.

- 1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해양환경에 지정함
- 2 각 부처에서 보호지역 정보를 받아 환경부가 관리하는 우리나라 보호지역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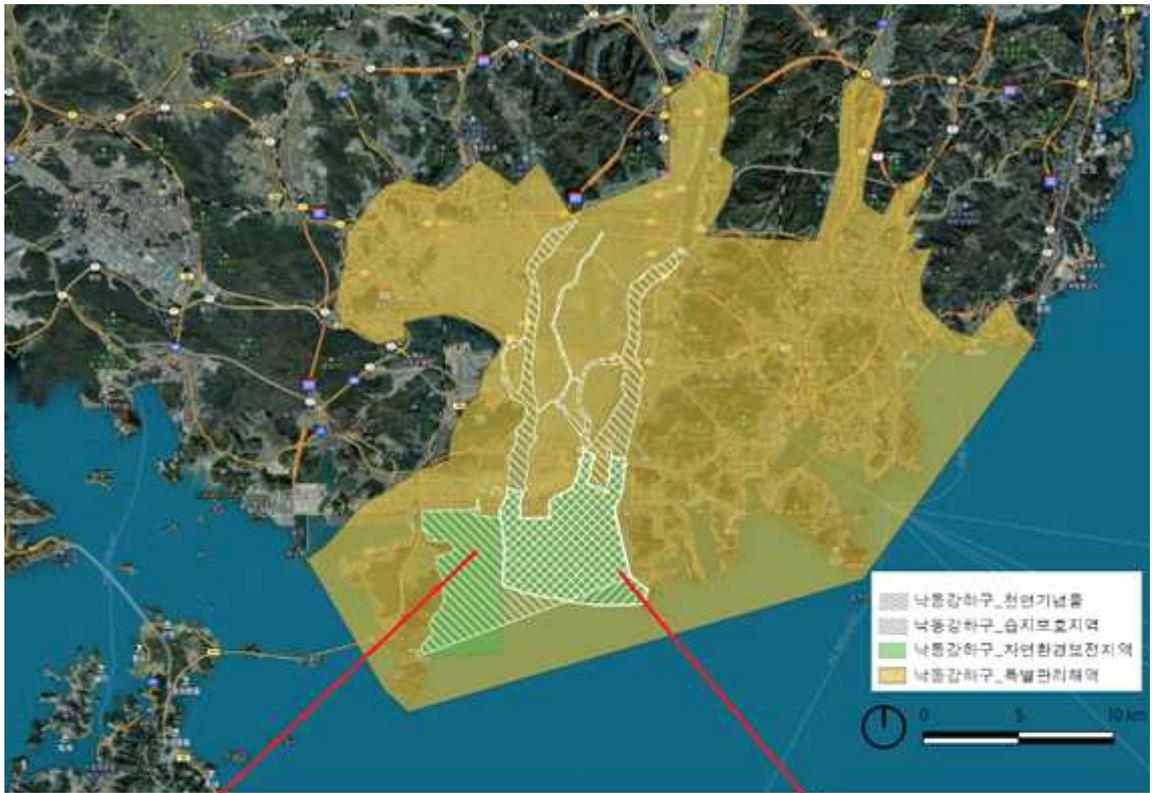


그림1. 낙동강 하구 보호구역 현황

2022년 현재 전국에 135개소의 절대보전 무인도서가 있으며 부산광역시에 존재하는 절대보전 무인도서 8개소 중 6개소(도요등, 맹금머리등, 백함등, 신자도, 장자도, 진우도)가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다. 해수부, 환경부, 문화재청, 국토부 등 4개 부처가 관리 책임이 있는 보호구역 중의 보호구역인 낙동강하구 섬들은 곳곳에 해양쓰레기가 방치되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해수부가 2019년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입간판을 세운 진우도는 해수부, 환경부, 국토부, 문화재청 등 어느 기관도 관리하지 않는 거대한 쓰레기섬에 가깝다.

2019년 10월 31일. “절대보전무인도서 진우도 출입제한 안내판 설치된다”



●2019년 해수부가 세운 ‘절대보전 무인도서’ 입간판이 쓰러져 있다.

2019년 10월 31일. “절대보전무인도서 진우도 출입제한 안내판 설치된다”



●김양식에 사용되는 염산통이 수북이 쌓여 나뭇굴고 있다. 해안에서 밀려온 쓰레기가 아니다.



●2021년 정화작업하였으나 방치되어 있는 마대자루



●섬 전체에 쓰레기가 장기간 쌓여 풀과 뒤엉켜 거대한 쓰레기 섬이 되어가고 있다.
1. 섬 속에 버려진 보트와 3척의 파손된 배, 폐건물 등 온갖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습지보호역, 천연기념물, 절대보전 무인도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인 백합등의모습(드론 촬영)



●냉장고를 비롯한 온갖 폐기물이 곳곳에 박혀있다(드론촬영).





● 백합동 폐기물 촬영 위치(드론촬영).

그림2. 낙동강 하구 보호구역 폐기물 현황

● 범부처 차원의 낙동강 하구 보호지역 관리 방안 필요

낙동강 하구는

각 보호지역이 갖는 특성과 그에 따른 관리의 독립성은 인정하되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통합성이 필요하다. 또한 동일한 보호지역에 관여된 부처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각 부처가 각자의 성과만을 주장하는 전시 행정에서 벗어나 생물다양성보호라는 공통된 철학, 분명한 관리목표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보호받는 보호지역’이 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 방안을 모색할 때다.

2022. 05. 20.

사단법인 부산녹색연합

문의 : 김수정 사무국장(010-4560-9139)